

# 換率上昇과 油價引上의 상관관계

**精** 油社의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原油가격이다. 석유제품의 제조원가중 原油代가 차지하는 비중이 90%나 되니까 원유가격의 변동은 거의 그 변동폭만큼 原價에 나타난다.

그러나 원유가격은 단기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. 또한 원유가격이 움직이면 정부 당국으로서도 석유가격조정에 손쉽게(?) 손을 댈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정유사의 손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오히려 換率이라고 할 수 있다. 換率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原油代가 오른다. 정유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므로 고정되어 있으나, 原油代는 달러로 매입, 지불하므로 환율이 오를 경우, 換率상승폭만큼 原油代를 더 내게 된다.

또 換率이 오르면 차관, 유전스 등 외화채무에 대한 換差損이 발생한다. 외채에 대한 이자도 달러로 지불하므로 換率이 오른 만큼 원화로는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다. 그러면 換率이 1% 오를 때, 油價인상요인은 얼마나 발생할까.

제조원가중 換率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原油代, 換差損과 외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$$\text{油價인상요인} = \text{原油代증가액} + \text{換差損} + \text{지급이자증가액}$$

● 原油代는 FOB로 표시되는 달러금액에 운임, 석유사업기금, 관세 등을 포함하면 배럴당 35.85 달러가 된다.

換率이 1% 상승하면, 석유가격을 고시할 때 기준으로 삼은 換率이 722원이므로 1 달러당 7.72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된다. 따라서 原油代증가액은

$$35.85 \text{ 달러} \times 7.72 \text{ 원} \times \text{換率상승기간동안 도입된 물량} \div 2 = 138 \text{ 원} \times \text{物量}$$

이 된다. 여기에서 왜 반으로 나누느냐 하면 1%

상승은 일정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동안의 평균換率은 0.5%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엄밀히 말하면, 상승패턴에 따라 평균換率은 다르다. 換率이 1% 올랐다고 해도 오르는 모양이 다르므로 해서 精油社의 부담은 달라진다.

● 換差損은 외화채무 × 換率상승분으로 나타난다.

현재 精油社의 총외화채무잔액은 약 26억달러이므로 여기에 7.72원을 곱하면, 換率 1% 오를 때의 換差損부담이 201억원으로 나타난다.

● 지급이자증가액은 외화채무잔액 × 이자율 × 換率상승분 ÷ 2로 산출할 수 있다. 여기서 2로 나누는 것은 原油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개념을 도입한 때문이다.

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하면,

$$26 \text{ 억달러} \times 10.7\% \times 7.72 \text{ 원} \div 2 = 11 \text{ 억원 이 된다.}$$

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, 換率 1% 상승 영향 = (138 원 × 물량) + 212 억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이것을 油價인상요인으로 나타내려면, 해당 原油 물량 × 基準油價로 나누면 된다. 현재 석유가격의 기준가격은 배럴당 29,899원이므로 油價인상율 = [(138 원 × 물량) + 212 억원] ÷ (물량 × 29,899) 원 이 된다.

이 공식을 풀면, 油價인상율 = (138 원 + 212 억원 ÷ 物量) ÷ 29,899 원으로 된다.

여기에서 변수는 물량이다. 물량은 기간에 비례하므로 換率상승기간이 길면, 油價인상율이 낮아지고, 기간이 짧으면 油價에 주는 인상압박은 커지게 된다.

연간 原油도입물량을 1억8천만배럴로 잡고 계산해 보면, 換率이 1년동안에 1% 오르면 0.86%의 油價인상요인이 발생하고, 6개월이면 1.25%, 3개월이면 2.04%의 油價인상요인이 발생한다. 물론 이것은 換率상승패턴은 무시하고 단순평균개념으로 계산한 것이다. (雙龍精油공장소식 11월호에서)